



전력분야 중소기업 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한 한국전력의 노력



선상진
한국전력 기업수출지원팀장

’93년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5개년 계획」 발표

1. 머리말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8%를 담당하고 있으

며, 국가 총수출액의 30% 및 제조업 부가가치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도 협력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제품구매 총액의 76% 이상이 중소기

업 제품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곧 한국전력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1993년 공기업 최초로 『중소기업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한 한국전력은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우수 전력기자재 개발을 통한 전력서비스 향상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부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로운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취임이래 3차례에 걸친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제1과제임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의지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수출촉진 TDR’ 과 수출지원 전담조직을 '09년 10월에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전력의 중소기업지원팀을 '09년 12월 14일부로 ‘기업수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



중소기업 CEO 초청 간담회

만 아니라 지원사업 패러다임을 국내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2. 주요 지원사업

한국전력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창업단계부터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축·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공공구매는 구매총액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은 전사적인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그룹사 차원의 공공구매 확대회의 개최, 그룹사별 공공구매 목표 할당제 시행, 공공구매실적 내부평가 반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공공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제품 법정의무비율(구매총액의 50%)을 크게 초과하는 7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2009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협력연구 개발사업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안전 등 분야별 연구과제에 대하여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전체 연구비중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은 과제선정 단계부터 연구과

협력연구개발로 생산된 제품, '97 ~ '09년 누계판매 실적 5,404억원 창출

정 및 개발 완료후 개발제품에 대한 활용촉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협력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지난 9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누계 판매실적(한전, 내수 및 해외수출 실적 포함)은 5,40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성장의 기반이 됨은 물론 한국전력 또한 우수 전력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전력품질 향상, Cost-Down 등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한전과 중소기업 간 상호 Win-Win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다. 생산자금 지원

한국전력과와 납품계약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제공되는 네트워크론, 공공구매론, 전자발주론, 파워에너지론은 시중 신용대출상품 금리보다 저렴한 이율이 적용 될 뿐만 아니라 무담보 무보증의 대출조건으로 인해 담보력 문제로 시중 대출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한전에서 운영중인 자금지원제

도 이용실적은 1,822억원으로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는 36억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4월 시행된 파워에너지론은 국내 최초로 1차 협력사는 물론 그동안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라.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국내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객관적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개선 및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력기자재 불량률을 감소시켜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등 가시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ISO 9001, 14001시리즈 지원을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NEP, NET 등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지원을 통한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 강화를 위하여 전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혁신활동 전개, 배전품질 등급제와 연계한 품질혁신 교육을 시행하였고 '09년 4월에는 『싱글PPM 우수 모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마. 정보화 기술개발 지원

경영·생산관리 업무 등을 시스템화하여 중소기

구분	네트워크	공공구매론	전자발주론	파워에너지론
대출한도	1년간 한전거래실적 1/6한도	선금금을 제외한 계약금의 최대 80%	선금금을 제외한 계약금의 최대 80%	선금금을 제외한 계약금의 최대 80%

자금지원제도 운영 현황

업의 생산성과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ERP(전사적 자원관리), EP(기업포탈), ASP(맞춤형 IT서비스) 등으로 특화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협력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구축기업 Pool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구축지원 IT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구축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최적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사.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사업이란 공동의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로서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 2005년 도입하였다. 그동안 원가절감, 자재 적기조달, 품질개선, 신개발 공법 성과공유 등 한전 고유의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한전 고유의 성과공유 모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3. 수출촉진 지원계획

2009년은 '48년 정부수립 이후 세계 수출순위가 역사상 처음으로 9위권 도약이 확실시되며 수출시장 점유율 3% 진입이 전망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월 30일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까지 수출 첨병인 2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 1만

개를 추가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거래기반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력수요 감소세로 성장한계에 부딪힌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조직의 명칭을 '중소기업지원팀'에서 '기업수출지원팀'으로 변경하여 단순 재정지원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수출촉진 TDR』를 통해 효과적인 수출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여 2009년 11월 '필리핀, 이란 수출촉진회'를 통해 현장계약 400만 달러, 계약예상액 1,400만 달러, 현지 에이전트 26개사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0년도에도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지역인 이집트, 수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출촉진회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이란 수출촉진회

국내 전력기자재 홍보전략도 강화된다. 기업수출 지원팀은 2009년 12월 16일 한국전력 영문 홈페이지에 일종의 On-line Mall 형태인 우수 중소기업 접속루트(www.kepco.co.kr/eng/supplier info)를 신설하여 해외 바이어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Supplier Information' 제공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 2월에는 한국전력 본사 1층에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장도 개장하여 방한바이어에 대한 국내 전력기자재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 수출초기자금 융자지원 ▲ 영문 전력기자재 운전증명서 발행 ▲ 해외바이어 전력설비 견학지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4. 맺음말

한국전력은 좋은 품질의 전력기자재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있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전력손실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전력을 공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녹색성장과 접목한 R&D지원사업,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파워에너지론과 같은 신자금지원 상품의 지속적 개발 및 활성화, 전력산업분야 Hidden Champion 발굴·육성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축된 상생협력 네트워크는 KEPCO와 협력기업이 세계적인 Great Company로 동반 성장하는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KEA